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 제1회 새가족부 Homecoming Day 열린다 9월1일(토) 오후3시 만나홀에서

올해 등록한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회 각부서의 책임을 맡은 분들과 대면하고 교구 및 다락방, 선교회 및 전도회, 성경공부반에의 자리 매김과 봉사 부서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제1회 새가족부 홈커밍데이가 개최된다.

이 시간에 최근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창회를 갖고 감사예배(말씀: 이중윤 목사)를 드린 후 찬양과 간증의 시간을 갖게되고 이어서 자신들이 소속된 부서를 자리 매김하고 희망하는 봉사 부서의 booth에서 안내를 받고 상담도 하게 된다. 교회에서 준비한 저녁식사도 함께 하며 교제를 나누게될 본 행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새가족 프로그램과 교회정착에 대한 많은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회는 등록교인들의 가정이 다함께 참석해 주길 바라고 또 현재 본 교회에 출석하면서 아직 등록하지 않은 성도들도 이번 행사에 함께 참여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본 행사를 위한 예비모임은 관련부서의 책임자들과 함께 오늘(26일 주일)3부 예배 후 1층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있을 예정이다.

## 목회자 세미나, 성경대학, 경로대학, 주부대학 개강 -9월 첫 주에-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한 20학기 목회자 세미나와 10학기 성경대학, 3기 경로대학, 2학기 주부대학이 9월 첫 주에 모두 개강하여 2001년 가을학기 학사일정을 시작하게 된다.

특별히 이번부터 모든 강의를 온 성도와 인근 지역주민에 개방하여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열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되어 이번에 등록하여 10주간의 교육을 마친

분들은 상당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되므로 주변의 이웃에게 전하여 기회를 선용하도록 교회는 바라고 있다.

등록비는 목회자 신학세미나 20000원, 성경대학과목당 10000원, 경로대학-10000원, 주부대학-10000원으로 결정되었고, 신청 및 접수는 사무국에서 받는다.

### 단기선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오다

온 교회가 기도하며 함께 한 단기선교팀이 은혜중에 1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23일 귀국하였다.

단기선교팀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카렌족을 대상으로 예배당을 짓고 선교집회를 갖는 등의 다양하고 알찬 선교활동을 펼쳤다.

이제는 모든 선교활동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헌신이 열매 맺도록 기도하는 일만이 남았다.

교회는 단기선교팀의 노고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드리며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에 승전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다

### 새가족 환영회

무더운 8월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생명을 우리에게 인도해주셨다.

온 교회는 맡기신 생명을 양육하는데 큰관심과 사랑을 갖고 오늘 저녁 찬양 예배시에 8월중예 새로 등록한 성도들의 환영회를 갖는다.

### 8월 새가족

강민자 권순석 권순원 권혁우 김 영 김성근 김순분 김용남 김용언 김운숙 김원중 김태균 김태봉 노정호 박미영 박지선 배문수 백준기 선명순 신원열 오신옥 유성임 이은숙 이계숙 이충기 이희정 전재원 채지숙 천성미 최경아 최다솜 최연희 최웅진 최희진 한광파 한송이 한태선 홍정희 이상38명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이 산지족을 구원하소서



- ① 후아이라마을의 교회실업예배 중 기도를 드리는 원주민
- ② 메블랑 마을 어린이들- 밝고 순수한 눈망울을 가진 영혼들...
- ③ 메보따 마을의 교회에서 드린 저녁집회에 참석한 원주민들

### 다음주부터 다락방예배 계속된다

교회는 8월 한달 간 잠시 휴식을 취하였던 다락방 예배를 9월 첫 주부터 다시 시작한다.

각 교구의 간사와 다락방장들은 맡은 교구의 다락방 성도들의 상태를 점검하여 다락방 운영에 차질이 없고 은혜로운 다락방 모임이 되도록 준비한다.

### 찬양대의 찬양위치 바뀐다

다음주 - 9월 첫 주일(9월2일)예배부터 찬양대의 찬양위치를 조정하여 주일 낮 I II III부 예배 시 찬양대는 찬양순서시간에 강단 앞 계단에 나와 찬양을 드리게 된다.

각 찬양대는 현금시간에 계단으로 이동하고 찬양대원들은 현금을 입례송 부르기전 드리고 현금시간에는 바구니를 위원들에게 전달한다. 성도의 교체 시간도 찬양 후로 변경되어 이 시간에 찬양대원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 이번주 말씀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신민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개역개정판 막 6장 8-9)

These were his instructions: "Take nothing for the journey except a staff-no bread, no bag, no money in your belts. Wear sandals but not an extra tunic (NIV Mk 6: 8-9)

# 이사야서 강해

# 복음의 능력

(이사야 49:22 - 26)



이중운 목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이방의 빛을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된 것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함입니다.

### 1. 이방 민족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된다

"내가 못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22절).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 되었는데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해외 선교는 왜 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백여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국은 물론이고 외국 선교도 게을리 하면 안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민족입니다. 우리도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22절). 그 때 이방인들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로 기쁘게 돌아오게 됩니다. 양이 양을 물고 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앞서 가는 양이 길을 잘 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특별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면 교회는 저절로 잘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효과적으로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십부장, 오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제도를 만들 것을 권면 했습니다.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23절).

이방 나라의 왕들은 하나님 백성을 길러주는 양부나 유모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의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있다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왕들의 수하에 있는 백성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라"(23절). 이방에서 세력을 잡은 이들은 교회에 복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의 왕들이 교회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군왕들도 티끌을 핥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바로 순종하면 군왕도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그 때 신자 자신도 한층 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 2.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라

(1)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움을 없게 한다(23절)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질병과 원수로부터의 공격, 배신, 사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고 모든 염려에서 놓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같은 신앙인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되게 찾는 자를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좋아하시고 멸망시키기를 즐겨 하시지 않는 까닭입니다.

### (2)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적해 주신다(25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25절).

하나님 백성과 진리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쨌든 그런 사람은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는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용사의 손에서 건져내고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용사와 같아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용사를 결박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 곧 세상 힘을 가진 자를 대적하시므로 마지막 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사랑입니다.

### 3.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 하십니다. 혹시 그들이 범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편에 서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벌하시면서도 사랑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벌하십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보장이 됩니다. 저희가 범죄 했을 때 원수를 들어서 저희를 때리는 채찍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십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26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함께 하는 원수들의 대적은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26절은 원수의 나라에 내란이 일어나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나 민족 중에서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는 자는 자기가 판 응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격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와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26절).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디서나 벌을 받게 됩니다. 모든 육체, 곧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중심으로 하여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수중에 넣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사를 연구해보면 역사는 그리스도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교회가 서서히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다가 이방인들도 여호와와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영광을 찬탈 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롬 16: 5)

### 태국 단기 선교일정 보고 최요섭 (청년부)

우선 모든 일정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셔서 서울교회 단기 선교팀에게 희망과 비전을 허락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은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4월 13일부터 15주간의 선교훈련을 거쳐서 8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을 허락 받았습니다.

8월 13일 오후 1시경 예배를 드리고 이종윤 목사님이 하 많은 교역자분 들의 환송을 받으며 교회를 떠난 선교팀은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고 5시간 후 태국에 도착해서 다시 치앙마이행 국내선을 타고 1시간 정도를 날아 치앙마이에 도착했습니다. 선교팀은 이양동 선교사님이 전도인들을 양육하기 위해 마련한 3층 건물을 베이스 캠프로 삼고 모든 여장을 풀고 일정을 정리한 뒤 다음 날인 14일부터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선교팀은 6명씩 4개 조로 나누어 매일 아침 큐티를 하며 경건의 시간을 갖은 후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4일 오전 치앙마이의 이양동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도착예배를 드리고 3대의 미니 밴과 소형 트럭을 타고 오후 5시경에 '후아이 라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선교팀은 먼저 현지 전도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지와 선물을 나누어주면서 전도활동을 펼쳤습니다. 50여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오후 7시에 찬양으로 시작한 전도 집회는 고경선 목사님이 한국어로 그리고 이양동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가 각각 태국어와



카렌족의 언어로 통역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15일 오전에 후아이 라이 마을에서 6km 가량 떨어진 메빨랑 마을로 이동하여 찬양과 워십 댄싱 등을 먼저 하고, 마을 곳곳을 돌면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전도 활동을 마치고 다시 후아이 라이 마을에 도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후 3시경에는 이 마을의 영적인 중심지가 될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오후 7시에 다시 전도 집회를 가졌는데 전날 보다 더 많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했고 고경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내리던 비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였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마을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교회 나눔의 장에서 손질하여 가져간 옷과 선물 등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6일 선교팀은 떠나기 앞서 오전 8시 30분 경에 마을 주민 30여명과 함께 교회설립 예배를 하나님 은혜가운데 드렸습니다. 마침 이날은 이 마을의 조상신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일년 중 최고의 축제의 날이어서 더욱 더 뜻 깊었습니다. 치앙마이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 단기 선교팀은 태국의 미얀마 접경지역인 '메사이' 지역을 지나 미얀마지역의 사원과 탑 등 태국과는 다른 미얀마의 불교 양식과 인근 시장을 탐방할 기회를 가졌고, 또한 태국과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가 두 개의 강을 끼고 만나는 곳인 'Golden Triangle' 지역도 탐방하였습니다.

베이스캠프로 내려와 하루를 자고 다음날 17일에는 이 곳에서 약 220km가량 떨어진 '멜라노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5시간 여만에 산 입구까지 도착한 선교팀은 다시 소형 트럭을 타고 한 시간 가량 산 속을 달린 후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메뽀타' 마을에 도착하여 곧바로 전도지와 선물을 들고 7시에 있을 집회를 위해 전도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작은 예배당이 있어서 7시경부터 예배당 앞마당에서 100여명의 마을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가졌습니다. 찬양과 워십 댄싱을 마치고 고 목사님과 두 분의 통역자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18일에는 '메사곶' 마을에 가서 마을 교회에서 집회의 시간을 갖고 교회 건축 자재 옮기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또한 '메팡노아' 마을에 가서 우선 학교를 방문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물을 나누어 주었으며, 학교 부근 언덕에 있는 교회 부지에 가서 앞으로 세워질 복음의 터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인근 마을에서 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메뽀타 마을에 돌아온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7시

에 마을 주민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가졌습니다. 찬양의 시간과 목사님의 말씀이 있는 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한 목소리로 드렸는데 서로 다른 민족이 다른 언어로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3시간여의 집회를 마치고 선교팀은 마을 주민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찬양으로 축복하면서 집회의 시간을 마감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후에는 교회 마당에 피워 놓은 작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지난 6일간 주님께서 인도하신 일정과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인 다음날 19일에는 10평도 채 안 되는 작은 예배



당에서 마을 주민과 우리 단기 선교팀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마을 주민들에게 선물을 받은 우리 일행은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찬양하며 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치앙마이로 이동하는 중에 이양동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멜라노이 교회에 가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치앙마이 베이스 캠프에 돌아왔습니다.

이튿날인 20일에는 방콕으로 이동하는 중에 치앙마이 대학에 가서 전도 활동을 벌였습니다. 찬양을 부른 뒤 홀어져서 태국어와 영어 그리고 몸짓까지 섞어 가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색함이나 부끄러움은 기쁨과 열심으로 변하여 오직 전도에만 집중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밤에는 야시장에 들러 태국의 여러 관광 상품이나 문물을 접할 기회를 가졌고 우리는 곧장 버스에 올라 15시간 이상을 달리며 버스에서 하루밤을 보내고 '파타야'에 도착했습니다.

21일에는 파타야에 있는 해변에서 잠깐동안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인 22일에는 방콕으로 이동하여 왕궁과 수상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23일 새벽 12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라 5시간을 날아 현지시각 7시 20분 경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태국에 가기 전 각자가 품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다 씻긴 바 되었고, 때때로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인해 우리 일행은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기쁨의 순간들을 맞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귀한 사역에 저희 단기 선교팀을 동참 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서울교회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저희의 받은 은혜와 기쁨의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씨빠뜨로나 니 싸 예수

##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라)

### 김성환(대학부)

보는이에 따라서 짧기도 혹은 길기도 한 10박 11일 가운데서 느낀 하나님은 누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알미우신 분'이셨다. 때로는 별례에 뜯기기도 했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치기도 했지만 말로 할 수 없는 감사함과 기쁨을 경험케 하셨다. 또한 적절하고 알맞은 때에 기도를 통하여 도저히 인간이 감당해 낼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던 사실 역시 도저히 선포하지 않고 지나갈수 없다.

"하나님 100% + 나 100% = 합이 100%"

어디선가 많이 들어봄직한 이 구절, 그렇다, 이번 단기 선교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100%를 주저함 없이 나타내셨고 또한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들로 그분의 사역에 동참케 하셨다.

이번 선교 여행에서 내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부분, 그것은 바로 우리 27명의 팀이었다. 그곳의 현지인들이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고 할렐루야와 아멘으로 그들의 인사가 바뀌는 역사에도 놀랐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27명 팀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이가 어린 16살 중등부부터 2분의 장로님까지...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을 품고 카렌족에게 다가가던 모습

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치앙마이 대학에서 한 사람씩 붙잡고 손짓 발짓 전도하던 모습하며, 부모가 버리고 간 소녀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던 대학부 지체들, 카렌어로 배운 찬양을 드리며 그들과 부르던 모습들, 몸이 아픈 지체를 위해 서로 기도하며 매만져 주던 모습까지... 내게 하나님의 느낌은 그렇게 이들을 통해 찾아오지 않았나 싶다.

이번 선교를 위해 우리는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준비했다고 믿었다. 금요일마다 계속한 단기선교 교육과 청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찬양을 통한 준비, 그리고 릴레이 기도와 말씀 묵상, 중보기도, 전화, 이메일 요청 등등... 하지만 정작 태국으로 갔을 때 내가 느낀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준비했다던 그런 것들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될만한 것들로 말이다. 우리가 필요하고 쓸 것들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기후와 현지인들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오래 전부터 우리를 준비 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준비 하셨던 것이다.

선교여행 중 어떤 지체가 나에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이 선교를 위해 성환이를 준비 시켜 놓으셨나보구나." 선교 기간 내내 부족한 모습만 보이던 아직 미흡한 나에게 선교를 위해 준비하신

자로 보내셨다는 그 말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앞으로도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져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자가 되길 소원한다. 구구절절이 모든 일들을 나열하기엔 하늘을 두루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야겠지만 그럴 수 없어 성경구절로 대신 해본다. 빌립의 말씀으로 말이다, '와 보라!'

정말 가서 보고 느낀 자만이 이 마음을 알리라. 마지막으로 그곳에 남은 10년째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이양동 선교사님과 가정, 현지 전도인 '따'와 '능' 그리고 카렌족을 위한 중보기도가 우리 안에 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현지 전도인 따 (눈어라는 의미) 의 저녁 집회때의 찬양 인도 -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꿈이다.

## 편지왔어요

주님의 뜻에 합한 주의 종 이종운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원합니다. 조절기 집사님이 정성껏 보내주신 설교tape을 은혜롭게 듣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마다 은혜가 넘치므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파별로 분깃을 나누므로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는 설교말씀에 따라 금년 제계 주신 주님의 주방사역을 감당할 때 전 주방 부원들에게 각각의 소임을 나누어 맡게 하므로 이 사역이 정말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저희 주방부원 모두 아름다운 헌신으로 주님 영광만 나타내게 하고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뒤에 감추고 교만치 아니하게 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건강도 허락 하옵기를 원합니다.

내 조국이 이만큼 발전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된 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 믿기에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 민족을 통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서울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75% 민족 복음화 운동이 성령님의 자비로운 인도로 하루속히 응답 받길 원합니다.

강을순 집사 드림

##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윤찬오 장로(10교구)

당신의 핏 값으로 세우신 몸 되신 서울교회에 이 찬한 것들을 청지기의 반열에 세우셨으니 모범적이고, 진취적인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소서. 무릎 꿇어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깨닫게 하시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당신의 성품을 닮아 가난하고 병든 자 곤고한 영들의 이웃을 섬기게 하시어 부활의 주님을 널리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당신의 주권에 완전히 굴복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히 종이 되게 하시며, 퇴폐한 세속적 가치에서 완전히 분리되게 하시어 쟁기를 잡고 뒤돌아봄이 없게 하

시고, 십자가의 바른 궤도를 향한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당신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의와 평강과 화목을 이루는 복된 교회에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7일(월) 성결교 전국 장로 수련회 강사로 개최특강을 한다
- 30일(목) 한국 장로교 정체성위원회를소집한다.
- 같은날 연세대 객원교수로 청빙을 받아 상건례를한다.
- 무지개회의 2001년도 신임 임명명단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최길옥 권사
- 총무 : 박경희 권사
- 서기 : 한춘홍 권사
- 회계 : 최소희 권사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이종운 목사 홍순복 사모 가정 (생일을 감사드리며)

##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경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목회자세미나,성경대학,경로대학,주부대학을 위하여
2. 동북아로 파송된 홍의만 윤혜경 선교사를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베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 안남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